

여수 '지역경제 활성화' 생색내기 비난

'관공사 지역업체 수주를 제고' 보도자료 비난 기준정책 나열...산림조합특혜 의혹 은폐 시선도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를 크게 높여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전형적인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내고 "관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또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 등 그밖의 공사 8,000만원, 물품과 용역 5,000만원 이하 등 사업에 대해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2,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 용역·물품

등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전임시장은 물론 민선 이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등에도 적시된 내용들이어서 '생똥맞은 보도자료'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 등 여수시가 그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해왔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여수시는 권오봉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수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51건, 32억여원에 달하는 사업을 계약했다. 이중 8,000만원 이상의 고액 공사도 1인 견적을 통해 수차례 수의계약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한국산림법인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산림조합과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통한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8,000만원이 넘는 산림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는 공개경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순천시는 지난 3일 전남도,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한국위원회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및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 '2023 정원박람회' 재개최 쟁결음

전남도·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업무협약

순천시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10주년이 되는 2023년 박람회 재개최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남도,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한국위원회(AIPH KOREA)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및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허석 시장, AIPH KOREA 안홍균 회장,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순천세마을회지회장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와 순천시 박람회 공동개최, 국·도비 확보 공동 노력, 박람회 지원단 구성 ▲전남도, 순천시, AIPH KOREA간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허석 시장은 "2023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의 숲, 마을, 습지, 해안, 국가정원 등 5대 자연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정원이 되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세계적 롤 모델로 만들고, 정원자재판매장과 정원수 공판장, 숙박시설 건립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정원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가구인 AIPH의 2월 순천 현지실사와 3월 미국 마이애미 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순천시는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조직위원회 구성 등 성공개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모든분야서 혁신의 힘 발휘할 터"

세태설계 유근기 곡성군수



유근기 곡성군수는 5일 "2020년은 기존의 성과들을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동시에 농업, 관광,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노린 것을 두려워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불패만지파장의 의미를 기억하며 다양한 삶의 선택지가 가득한 곡성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군 핵심 관광자원인 기마차들은 증기기관차 정차 역별 특화 사업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가정역 등 간이역 4개소에 피크닉 가든, 셰프 가든, 산책로 등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머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우선 모두가 행복한 곡성의 교육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그는 "가장 핵심 사업으로 군과 교육청이라는 관-관 협력체계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와 학교가 주도하는 민·관·학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며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에 힘쓰겠다"며 "3개 권역별로 기억키움마을을 운영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누구나 인지장애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농특산물의 소비·판매 거점화와 특화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판로와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행복한 곡성을 위해 올 한 해 하루도 헛되지 보내지 않을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광양 전남 최초 '스마트 도시 계획' 국토부 승인

도시문제 해결·삶의 질 개선 기대

광양시는 5일 "교통·재난·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광양 스마트 도시계획'이 전남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란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를 뜻한다.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융·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양시 스마트 도시계획은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 부

서 면담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립됐다. 생활과 관광, 안전, 행정, 인프라 5개 분야 30개 스마트 도시서비스와 기반 시설(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IoT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로드맵이 담겨있다. 분야별 구체적인 스마트 도시 서비스로는 '스마트 쓰레기통 포인트 적립시스템', 'AR 기반 길안내 서비스', '등산로 안전비상벨', 'AI 기반 민원상담',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와 IoT 자가통신망 구축·운영을 통해 도시

내 통신망, 교통망, 시설물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분석해 시민이나 관련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 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도 반영됐다. 정형복 시장은 "스마트 도시계획 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스마트 도시 구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고, 각 부처 스마트 도시 구축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 광양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순천농협 강구만 수석이사 표창 농림축산식품 산업 발전 공로

순천농협 강구만 수석이사(이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를 받았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농정을 홍보하고 농림축산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강구만 이사는 순천농협의 이사를 맡아 순천지역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열악한 환경의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에 누구보다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새로운 작물의 재배기술을 먼저 습득해 대중화와 상품화에 기여했다. 또 이를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원년 삼을 것"

세태설계 김순호 구례군수



김순호 구례군수는 5일 "2020년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오는 3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군민과 향우 3만5,000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드림파크 3단지 유치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 김 군수는 "사회적기업·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과 노인·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며 "5일 시장은 문화형 시장으로 조성, 주말장으로 전환하고 대형버스 주차장과 가로환경을 개선해 군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구례를 전산지중화, 1,000원 버스도 본격 시행하고 구례형 교육도시 조성에도 총력을 다한다. 김 군수는 "민·관·학이 함께 교육 방향을 수립하는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한다"며 "전남자연과학고를 마이스터급 학교로 격상을 추진하고, 구례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김 군수는 "저소득층 100세대가 입주할 국민민대아파트를 10월까지 준공하고 경로당에 정수기·의료기기 보급, 급식·청소도우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5세 이상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복지사각대 등 민·관 협력 복지사업을 운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시대를 열어나갈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혁신협의회의 참여 범위와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군수는 "모든 것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며 "군민과 향우 여러분께 더 큰 보람과 자긍심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순천 온실가스 감축 세외수입 9억2천만원 확보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성과

순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6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9억2,0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얻은 세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에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중 2만2,900t을 초과 감축해 감축분만큼의 배출권 판매를 통해 얻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제한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부

족한 기업이나 기관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순천시는 그동안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65개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가스 회수, 고효율설비 교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순천시는 배출권 판매 수익금으로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장 온실가스 저감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순천시 김태성 생태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포스코 새해 첫 문화콘서트 15일 연다

포스코가 오는 15일 새해 첫 '포스코 문화콘서트'를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스코 문화콘서트에서는 빅데이터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송길영 님을 초청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대면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에서 나, 너, 우리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송 부사장은 빅데이터 전문 기업 다음소프트에서 소셜미디어의 소비자 정보를 분석해 고객사 니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JTBC '비정상회담', '김제동의 토틀유유', tvN '어쩌다 어른' 등 활발한 방송활동과 저서 '상상하지 말라'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빅데이터의 개

념과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강연에 이어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다의 뮤지컬 갈라쇼가 이어질 예정이다. 바다는 걸그룹 SES로 데뷔한 후 활발한 가수 활동을 이어가다 2003년 뮤지컬 '페퍼민트' 통해 뮤지컬 배우로 전향했다. 대표작으로는 '노트르담 드 파리', '미라는 괴로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미녀와 야수', '맘마미아' 등 출연했던 뮤지컬의 대표곡들을 선 보이며, 특히 12명의 뮤지컬 앙상블과 함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포스코 문화콘서트는 7월, 11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